

대학생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경험 - 일개 간호학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

이옥자¹ · 임숙빈² · 박현숙³

전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¹,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교수²,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³

Unresolved Suffering Lived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Lee, Ok Ja¹ · Im, Sook Bin² · Park, Hyun Sook³

¹Professor, Nursing of Science, Konyang University,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³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iscover the structure of the lived experiences of unresolved suffering of college students and to gather information to develop therapeutic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research question, 'What is the structure of the lived experience of unresolved suffering?' was examined based on Parse's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 Twelve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from K University. From May, 1 to June 30, 2009, Data were gathered from writings and engagement in dialog. **Results:** The structure found in the college students' lived experiences of suffering was as follows: negative self-concept from being discriminated and ignored by parents, feelings against people and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 feelings of isolation, betrayal, guilt, and loss. Their suffering was emotional grief and social withdrawal from damaged human dignity and low self-esteem from psychological trauma. Conceptual integration found to be in process of transferring the enabling-limiting, connecting-separating values.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rapeutic educational interventions for college students for further development as individuals and future health professional by developing awareness of the structure and the meaning of their suffering experience.

Key Words: College students, Suffering, Lived experiences, Parse,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고통(suffering)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근원적 체험이며 인간의 삶과 더불어 지속되어온 현상으로 신학자나 철학자 뿐만 아니라(Kim, 2004), 심리, 사회학자의 주요 관심영역이며(Lee & Cho, 2000), 최근 건강관련 분야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요 개념이다. 고통은 인간이 경험하는 하나의 심리·정서적인 반응현상으로 신체뿐만 아니라 정

신·사회·영적 측면에 걸친 전인적인 안녕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Ina, Shin, & Yang, 1994).

특히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빠르고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겪는 시기라 할 수 있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겪는 특정 경험들은 성인기의 행동 유형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사회적 건강 유지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고통 체험을 이해하고 이를 심리적 성장에너지로 전환시키도록 돕는 것은 정신건강증진 차원에서 중요한 간호 과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생의 고통 체험을 다룬 연구는 부모 사별 경험(Yang, 2008), 외

주요어: 간호대학생, 고통, 체험, 파시, 인간되어감 연구방법

Address reprint requests to: Im, Sook Bin, College of Nursing, Eulji University, 143-5 Yongdu-dong, Jung-gu, Daejeon 301-746, Korea.
Tel: 82-42-259-1711, Fax: 82-42-259-1709, E-mail: imsb@eulji.ac.kr

투고일 2011년 1월 10일 / 수정일 1차: 2011년 3월 11일, 2차: 2011년 3월 14일 / 게재확정일 2011년 3월 18일

상경험(Choi, 2010; Kee, 2007; Ko, 2008) 등으로 현저하게 두드러지는 고통 경험에 관한 연구들이었다. 그러나 Lee와 Cho (2000)에 따르면 인간이 경험하는 상처에는 뚜렷한 외상적 사건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사소한 마찰이나 오해, 그리고 성취의 실패도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직전까지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고통’을 이해하도록 해봄으로써 성인기의 새로운 삶을 창조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간호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Parse (1992)가 말했듯이 인간은 성장 능력을 가진 개방체계이며, 고정된 모습의 인간(human being)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스스로를 형성해 가는 역동적인 인간 되어감(human becoming)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사는 건강 전문가로서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에 가장 가까이 있으므로, 이들이 체험하는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은 대상자의 고통 경감이거나 간호중재의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Kang, 1998). 즉 고통을 개별화된 인간의 복합적인 경험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통합체로 파악하고(Kim & Jo, 2008), 이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관리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고통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고통은 자아의 완전성을 위협하는 상실, 상해, 훼손, 통증 등을 경험할 때 느끼는 극심한 괴로움의 상태(Kang, 1998)이므로 이론 교육만으로는 피상적인 이해를 높이기 쉽다. 이에 자기이해를 통해 타인의 이해를 높이는 이론적 조망에서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고통의 구조나 의미를 파악해보는 과정을 구상할 수 있다. 즉 간호대학생들 스스로의 고통을 이해해봄으로써 대상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간호학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고통 체험을 확인하고 고통을 이해하는 과정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고통 체험을 연구하려면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을 중시하는 질적 연구방법이 적절한데, 그 중 하나로 Parse (1992)의 인간되어감(Human becoming)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Parse (1992)에 따르면 건강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이 건강하다는 것은 인간되어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며(Lee, Kim, & Kang, 2000), 간호란 대상자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생생한 체험과 진실성 있는 대화로 함께 함(being with)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기능을 개발해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Parse, 1992). 특히 이 이론에서는 개인의 독특한 삶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므로(Lee & Lee, 2002),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고통 체험을 연구하는데 적합하다고 보았다. Parse (2001)의 연구방법은 대화적 관계를 통해서 연구 현상을 드러내고, 참여자와 연구자가 진정으로 함께 하며(true presence), 개방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목적 중심적인 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참여자로부터 체험의 정수를 뽑아내기 때문이다(Doucet, 2009).

이에 Parse (1992)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학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 체험’을 파악하고 구조화함으로써, 그들이 과거와 지금-여기에서의 경험을 미래로 어떻게 통합시키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간호학과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 중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간호 실무의 핵심 능력인 공감력을 증진시키는 교육훈련의 기초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 체험을 파악한다.
- 대학생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 체험의 구조를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Parse의 연구방법(Parse, 2005; 2006)을 적용하여 성인 초기에 이른 간호학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 체험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2. 연구대상

일 지역에 있는 K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학생 40명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 체험’을 서술하도록 한 후 연구자와 함께 너와 나의 대화(dialogical engagement)를 통하여 긍정적인 자기수용과 자기이해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인간의 경험은 과거-현재-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기에 과거의

고통 체험을 나누도록 했으며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 신상에 대한 어떤 자료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으며 연구참여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설명한 후 동의하는 12명을 대상으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3.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Parse's Human becoming method)

본 연구에서는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에 근거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Parse의 연구방법은 현상학적이고 해석학적인 것으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영위하는지에 대해 기술하고 체험(lived experiences)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본질은 우주적인 건강의 체험들로 슬픔, 제한-자유(feeling restricted-feeling free) 그리고 고통을 의미한다.

다차원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은 가치화(valuing)와 상상화(imaging)의 언어화(languaging)를 통해서 현실을 공동창조 하는 것이다. 울동적인 관계패턴을 함께 공동창조 한다는 것은 노출-은폐(revealing-concealing)와 가능-제한(enabling-limiting), 연결-분리(connecting-separating)의 역설적인 단일체(paradoxical unity)를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초월 한다는 것은 변형(transforming)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독창성(originating)을 독특한 방식으로 강화(powering)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방법은 크게 참여자의 서술 자료를 추출-종합하는 과정(extraction-synthesis)의 결과로 발견적 해석(heuristic interpretation) 과정(Parse, 1992; 2001)으로 이어지는데 본 연구는 이 과정을 충실히 따랐다.

1) 자료수집

자료는 2009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수집하였고, 연구자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 체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상자들이 자기 경험을 직접 글쓰기를 통해 서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참여자와 '진정으로 함께 하는' 자세로 '너와 나의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기 경험을 털어놓도록 하였다. 이후 인간되어감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대상자 중 연구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인터뷰를 통해 필사 자료를 보충하였다. 이 때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참여자의 구술 흐름에 따르는 형태로 인터뷰가 아니라

연구자와 참여자가 진정으로 함께 하는 너와 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구조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다(Parse, 2001). 연구자는 참여자가 서술한 경험을 어떻게 회상했는지, 현재의 경험은 어떤지, 또한 그 경험으로 인해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드러낼 수 있도록 대화를 하였다.

2) 자료분석

(1) 추출-종합과정

자료의 분석은 연구자가 참여자의 언어로부터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체험의 구조를 추출하는 것이다. 즉 참여자가 묘사한 체험에서 의미를 끌어내도록 기록된 내용에 나타나는 구조(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체험)를 확인하는 것으로(Parse, 2001), 본 연구에서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참여자의 언어를 적은 기록에서 경험의 주요 내용(essence)을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한 주요 내용을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하였다. 셋째, 각 참여자의 서술에서 언어-예술(language-art)을 만들었다. Parse의 연구방법에 따르면 참여자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언어화한 것을 '언어-예술'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참여자의 체험을 명제화하는 것으로 인간되어감 이론에서는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의 예술적 요소로서 삶에 대한 개인의 관점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넷째, 만들어진 언어-예술에서 핵심개념(core concept)을 다시 뽑아냈다. 이 때 구조는 언어-예술의 중심 의미를 나타내는 관념이다. 다섯째, 추출된 구조를 생생한 경험의 구조로 종합하였다.

(2) 결과로서 발견적 해석

분석된 자료의 해석은 체험의 구조를 이론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며 논리적이고 추상성이 높으며 창조적인 마지막 과정으로 구조적 통합과 개념적 해석과정을 거친다. 구조적 통합과정에서는 형성된 구조를 인간되어감 이론의 구조로 통합하고, 개념적 해석과정에서는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을 사용하여 체험의 구조를 구체화한다. 체험의 구조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합한 역설적인 삶이다(Parse, 2001). 이에 대한 발견적 해석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연구자는 예술적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주로 희망, 기쁨-슬픔, 제한-자유, 만족, 애통, 고통 등과 같은 체험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어휘, 상징, 음악, 은유, 시, 사진, 그림 혹은 활동을 기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총체적인 경험의 느낌으로 참여자

들과 함께 했으며 12명 참여자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과 연결하였다.

연구결과

1. 참여자의 서술에 따른 추출-종합과정

연구참여자들의 서술과 추출 종합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특히 언어-예술과 개념적 통합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1) 참여자 1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1의 서술(story)

힘 있던 친구들이... 놀지 말라는 제안을... 거절했던 기억... 철저한 고립이었... 소외감... 점차 자신감을 잃어

갔고..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아부를 해보기도... 어느새 행동할 때 마다 아이들의 눈치를 보고... 제 모습에 자괴감을 많이 느꼈고... 많은 스트레스였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어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싫은 소리를 하면 친구를 잃게 될까 두려워 싫은데도 괜찮다고... 마보같이 대처... 그때 남들과 좀 더 게 고민을 나누어 볼 수 있었다면, 피해의식은 좀 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2) 참여자 1의 서술 추출(essence of participant 1's language)

친구를 따돌리고 놀지 말라는 힘 있는 친구의 제안에 반발했더니 고립되었다. 자신감을 잃어가면서 어울리고 싶어서 아부를 하고 눈치를 보는 제 모습에 자괴감을 느꼈고 많은 스트레스였다. 새 친구를 만나 마음을 열 수 있었지만 친구를 잃게 될까 두려워 싫은데도 괜찮다고 대처하게 되었다.

Table 1. Language-arts and Conceptual Integration

| Participant | Language-art | Conceptual integration |
|----------------|---|---------------------------------------|
| Participant 1 | Suffering is the regretfulness of ineffective coping during the overcoming process from the memory of the bullies | Valuing Transforming |
| Participant 2 | Suffering is the difficulties to build a trustful interpersonal relations due to a negative self-concept, hostility to a man, and rage which were rooted from mother's discrimination and ignorance | Connecting-separating |
| Participant 3 | Suffering is the guilt not preventing friend's suicide due to indecisiveness on the conflicting situation | Enabling-limiting |
| Participant 4 | Suffering is the difficult growing process by the schism between her parents | Connecting-separating |
| Participant 5 | Suffering is the desire to get over the painful impact by the parental discord | Connecting-separating |
| Participant 6 | Suffering is the conflicts among the family members caused by father's lay-off | Connecting-separating |
| Participant 7 | Suffering is the regretting bullying experience at school | Connecting-separating Transforming |
| Participant 8 | Suffering is the struggling to be fully mature beyond the grief of the loss of father | Connecting-separating Transforming |
| Participant 9 | Suffering is the frustration and grief about the mother's shame of her child, | Connecting-separating Originating |
| Participant 10 | Suffering is the struggling with a negative self concept within the loneliness and frustration from the disrup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 Connecting-separating Originating |
| Participant 11 | Suffering is the difficult relationship building and negative self concept due to the psychological trauma as a victim during the schooler, | Connecting-separating Originating |
| Participant 12 | Suffering is the feeling of treachery and loss from the effort to keep the friendship against being excluded, | Valuing Connecting-separating |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라면 피해의식을 덜 느꼈을 것이다.

(3) 연구자 언어 종합(essences of researcher's language)

고립되었던 왕따 경험이 가장 힘들었던 스트레스였으며 환경 변화에 따른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응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대처방안에 관해 반성하는 과정이다.

(4) 참여자 1의 언어-예술(language-art)

참여자 1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체험은 환경 변화로 인한 왕따 경험의 고통을 극복하려는 적응과정에서 비효율적이었던 대처 방안을 반성하는 체험이다.

2) 참여자 2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2의 서술

엄마는 나를 키우기 힘든 아이라 하셨고... 항상 동생에게 밀려있다고 생각하여 상처가...엄마는 나를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철없는 아이로 한심하다... 사춘기에 유난히 반항이 심하고 분노를 폭발하였다. 아직도 엄마와 문제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상처가 불거져 나왔다. 한 달 전부터 어묵볶음을 해달라고 말했... 잊어버리고 안 해주던 분이 동생이 오랜만에 오니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엄마가 해놓은 반찬을 먹는데 엄마는 폭식한다고 혼내셨다. 너무 화가나 엄마와 크게 싸우고 말았... 내년부터 집을 나와서 지내겠다고 선포하고 싸움을 마무리했다. 엄마가 동생을 편애함을 느꼈고... 남자인 동생을 더 예뻐하는 엄마 때문에 난 동생이 미웠고 동생에게 지는 것을 싫어했고... 신앙생활을 통해 위로받고 극복했지만... 엄마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는 편이며, 쉽게 치료될 수 없고 내 생애 항상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2) 참여자 2의 서술 추출

나를 한심하게 치부하는 엄마의 관심을 얻기 힘들어 방황하고 분노를 폭발하였으며 싸우고 집을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남동생을 편애하는 엄마와의 관계가 트라우마가 되어 남자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고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3) 연구자 언어 종합

사랑받고 싶은 어머니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성장한 고통 속에서 편애당한 상처로 분노하며 남성에 대한 적대

감과 부정적 자기개념으로 신뢰하는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

(4) 참여자 2의 언어-예술

참여자 2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체험은 어머니에게 무시당하고 편애당한 고통을 분노로 표현하며 남성에 대한 적대감과 부정적 자기개념으로 신뢰하는 인간관계가 어렵다.

3) 참여자 3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3의 서술

자살이라고?... 누구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에 직면... 친구가 도움을 청했을 때 지나쳐버리고 상황을 외면했던 자신이... 죄책감으로... 화해만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던 터라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습...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보내고 말았... 친구가 허망하게 간 100일째, 다른 친구가 유골이 있는 사찰에 다녀온... 얘기를 나누자고 했을 때 속마음을 들었다면, 어떤 고민을 가졌는지 듣고 위로했다면, 친구가 그런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우유부단하게 행동했던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 너무 후회하며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괴로운 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를 잊어가는 것 같고 무너지는 자신을 깨달을 때, 이 죄책감과 미안함은 평생 남을 것...

(2) 참여자 3의 서술 추출

도움을 청한 친구를 외면했더니 친구는 자살했고 위로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했던 자신을 깨달으며 죄책감으로 괴롭고 가슴이 먹먹하다.

(3) 연구자 언어 종합

친구 사이에서 우유부단하게 행동해 친구의 자살을 예방하지 못한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슬퍼하고 있다.

(4) 참여자 3의 언어-예술

참여자 3의 해결하지 못한 고통체험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여 갈등관계를 돕지 못하고 친구의 자살을 막지 못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체험이다.

4) 참여자 4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4의 서술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와 엄마가 말다툼하는 소리...

“돈 못 벌어 온다고 날 무시한다.”는 것...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소리는 커지고 분위기가 더 험악해 저서... 상처와 고통이 상당... 비명인지 악쓴 건지 소리를 질렀는데... 방문 밖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 막막하고 무서워서 엎드려 펄펄 울었... 살인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있던 모든 식칼을 가방에 넣고 밖으로 나와 버렸... 솔직히 감당하기 싫었고 부담이었...

(2) 참여자 4의 서술 추출

부모님의 부부싸움의 험악한 가정 분위기로 상처받아 막막하고 무서웠다.

(3) 연구자 언어 종합

부모의 불화로 힘들었던 성장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을 많이 받았다.

(4) 참여자 4의 언어-예술

참여자 4의 해결하지 못한 고통체험은 부모의 불화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장과정이다.

5) 참여자 5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5의 서술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자주...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빠가 미웠고 함께 있기가 싫었다.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살게 되면 언니랑 나는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이 했고 밤에 엄마 몰래 이불 속에서 울기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평온한 가정 분위기를 되찾았...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커 갈수록 아빠와의 거리가 점점 생기는 것을 느꼈고, 아빠와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엄마와 나 사이는 친구처럼 더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엄마랑 더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아빠에 대한 느낌이 아직까지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빠를 엄마보다 더 어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2) 참여자 5의 서술 추출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아빠가 싫어져 큰 충격을 받았으며 아빠와 거리가 생기고 엄마와는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가 되었으나 부모님의 부부싸움은 두려움과 치유에 대한 기대감으로 남아있다.

(3) 연구자 언어 종합

부모님의 불화로 충격을 받아 두렵지만 치유에 대한 기

대감은 남아있다.

(4) 참여자 5의 언어-예술

참여자 5의 해결하지 못한 고통체험은 부모의 불화로 충격을 받은 아픔에서 치유되고 싶어 하는 체험이다.

6) 참여자 6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6의 서술

나의 위기이면서, 우리 가족의 위기... 아버지는 갑자기 회사를 나오셨다.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날이 몇 개월이 지날수록 나도 점점 불편해지고, 어머니 혼자 직장에 다니는 모습이 안쓰럽고 이상했다. 전에는 볼 수 없던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도 들리고... 항상 아버지가 무섭고, 어려웠다. 항상 자기만 혼자라고... 서운해 하시고 속상해하시는 건 알지만... 내 기억 속엔 어머니는 피해자고, 아버지는 가해자일 뿐이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2) 참여자 6의 서술 추출

아버지가 직장을 잃은 후 부모님의 부부싸움으로 가족은 위기를 겪었고 무섭고 격하신 아버지가 싫었으며 울고 계신 어머니는 피해자라 생각했다.

(3) 연구자 언어 종합

아버지가 직장을 잃은 후 가족의 위기를 경험했으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족관계가 형성되었다.

(4) 참여자 6의 언어-예술

참여자 6의 해결하지 못한 고통체험은 아버지가 직장을 잃은 후 가족의 위기를 경험했으며 가족관계가 힘들어졌다.

7) 참여자 7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7의 서술

왕따를 시키는 친구의 책을 짓밟거나 싸대기를 때렸.. 가방은 모래로 가득하거나 더 심한 괴롭힘을... 왕따를 당하지 않는 다른 친구들과 나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왕따를 시켰다. 나만은 왕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했다. A가 너무 껄껄했지만... 거의 매일 놀러가다시피 하면서 더 친해졌... 받은 억지였고 받은 능동적이었다. 숙제를 못해온 친구에게 숙제를 보여주었더니 A는 왜 보여주느냐며 다그쳤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물려와 로션을 내 얼굴과 가방에 여기저기 문혔다. 며칠 동안 계속 그러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같은 반이 되어 매우 절망...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속상해하시고 A의 부모님께 전화로 모든 사실을 얘기하고 가정교육을 부탁드렸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고 내가 먼저 편지를 끊었다. A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지금까지 A와 같이 내가 괴롭히던 친구들에게 너무나 미안하였다. 나이가 들면서 그런 앙금은 없어져 갔고 어린 시절의 좋지 않은 추억으로 남았다.

(2) 참여자 7의 서술 추출

인격 모독적이고 폭력적으로 왕따를 시키는 친구와 같이 괴롭히며 나만은 왕따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자부했으나 친구들과 몰려와 다그쳐서 참을 수가 없었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기에 편지를 끊은 후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괴롭혔던 친구들에게 미안하였다.

(3) 연구자 언어 종합

가혹했던 왕따 참여 경험을 회상하며 친구를 괴롭혔던 죄책감을 떠올리고 자신을 반성한다.

(4) 참여자 7의 언어-예술

참여자 7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 체험은 가혹했던 왕따 참여 경험을 회상하며 친구를 괴롭혔던 죄책감을 떠올리고 자신을 반성하는 과정이다.

8) 참여자 8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8의 서술

아빠의 암 투병은 2년 동안 계속.... 엄마는 병원에서 숙식... 할머니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싫었다. 아빠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과 그 상황에 놀라서 평평 울었... 차갑게 식어가는 아빠 손을 잡고 숨이 끊기기 직전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빠는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난 아빠가 아플 때 헤드린 것이 없다. 엄마가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기도 했고... 나에게 의지하기도 하셨고 나 때문에 산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아빠를 가끔 잊은 듯이 살고 있다.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 슬프고 힘들어도 엄마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고 혼자 앓아야 했다. 겉은 강한 사람이 되었고 더 밝은 척 해야 했던 적도 있고 엄마에게 욕되지 않게 더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2) 참여자 8의 서술 추출

아빠의 암 투병으로 엄마가 병원에 계셔서 할머니와 있

어야 한다는 상황이 너무 싫었고 아빠의 임종 후 슬프고 힘들어도 내색할 수 없어 겉은 강한 사람이 되었고 밝은 척하며 엄마에게 욕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했다.

(3) 연구자 언어 종합

아버지의 상실의 슬픔을 극복해가며 내면의 성숙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4) 참여자 8의 언어-예술

참여자 8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 체험은 아버지의 상실의 슬픔을 극복해가며 내면의 성숙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9) 참여자 9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9의 서술

대학입시로 예민해져 있던 시기... 엄마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만들어졌다. 아주머니끼리 자식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지원하지도 않은 Y대를 지원했다고 거짓말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부끄럽다고 했다. 순간 난 달리는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 기분을 언짢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로 엄청 상처를 받았음.... 엄마가 손을 잡아도... 따뜻한 말을 해도... 포용해도... 내 마음 속에서 계속 밀어냈다. '엄마'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헌신적이셨던...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생기며 한편으로는 미움이 가슴 한 곳에서 묻어나오기도 했다. 한 동안 잠도 못 잤고 괜찮은 듯 있다가도 그 날 일이 생각나서 화가 갑자기 나고 운적도 많다.

(2) 참여자 9의 서술 추출

엄마가 지원하지도 않은 Y대를 지원했다고 거짓말을 하시며 나를 부끄럽다고 말한 순간 달리는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었던 아픈 심정이어서 엄마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이 만들어졌으며, 내 마음속에서 화가 나서 계속 밀어냈다.

(3) 연구자 언어 종합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엄마로 인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으며 가식적인 행동에 분노를 느껴 마음의 벽을 쌓으며 엄마를 거절하고 비통함을 느꼈다.

(4) 참여자 9의 언어-예술

참여자 9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고통 체험은 자식을 부끄러워하며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엄마로 인해 분노를 느꼈고 마음의 벽을 쌓으며 비통해하는 과정이다.

10) 참여자 10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10의 서술

혼자 버려졌다는 느낌을 못 견뎌... 마음의 문을 닫아 사람 자체가 싫어지기... 남자 친구와 헤어지고... 가족들을 못 본지 한참 된 상태였... 울면서 한탄했다. 외로워죽겠는데 가족들은 먼 곳에 있고 친구들도 내 편이 아닌 것만 같아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듯한 기분, 절망감,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 미움의 화살은 모두 동기들에게 향했다. 외롭다, 속으로만 끔끔 앓다가... 누군가 작은 말실수라도 하면 큰 싸움으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당시엔... 사람을 피했다.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못된 마음이짐... 이런 말 못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영영 없어 보인다.

(2) 참여자 10의 서술 추출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버려졌다는 느낌을 못견뎌하며 절망감, 배신감이 사람을 피하고 치유되지 않은 말 못할 외로움으로 고통 받는다.

(3) 연구자 언어 종합

혼자 버려졌다는 고립감과 대인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 속에서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고통 받는 과정이다.

(4) 참여자 10의 언어-예술

참여자 10의 해결하지 않은 고통 체험은 고립감과 대인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 속에서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고통 받는 과정이다.

11) 참여자 11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11의 서술

초등학교 때 전학을 많이 다녔... 담임선생님께서 나를 좋아하자 친하던 아이들도 한편이 되어 날 왕따 시키는 모임이.... 신발이 없어졌는데... 푸세식 화장실에 빠져있는 것을 발견... 쪽지가 와서 펼쳐보면 뼈곡히 욕들이 적혀있었다. O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하 부리듯 하였다. 숙제를 대신 한다든지, 시험기간이 되면 내 책을 갖고 가도록 한다든지, 액세서리를 훔칠 때 망을 본다든지, 제일 심했던 것은

일진 아이들과 싸울 때 같이 싸워주기를 바랬다. 반이 갈라지면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이 관계가 침묵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주위 사람이 내 기준이 되었다. 나를 버리고 남의 기준을 맞춰야만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가끔씩 그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다. 사랑받고 싶은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인지 모르겠다.

(2) 참여자 11의 서술 추출

초등학교 때 부하 부리듯 왕따를 당했기에 남의 기분을 맞춰야만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주위 사람이 내 기준이 되었으며 좋은 친구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

(3) 연구자 언어 종합

학령기의 왕따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으로 자아개념과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과정이다.

(4) 참여자 11의 언어-예술

참여자 11의 해결하지 않은 고통 체험은 학령기의 왕따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으로 을 입어 자아개념과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과정이다.

12) 참여자 12의 추출-종합과정

(1) 참여자 12의 서술

친구들이 담배, 술을,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였...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배신자로 배척... 큰 다툼이... 전학생이 오게 되어 곧잘 어울렸고 다른 아이들과는 멀어지기 시작... 전학 온 친구를 왕따 시키려 하였... 전학 온 친구와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왕따 시키는데가 답할 수 없었... 방과 후 어깨를 치면서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하였... 몇 명만이 저와 전학 온 친구를 옹호해주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눈치를 보면서 피했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친구들의 태도에 '믿을 사람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오래된 친구들의 상실과 어려서부터 같은 지역에서 지내 온 다른 친구들의 배신감에 혼자 잠자기 전까지 매일 울었습니다. 친구를 사귄 때 경계하는 모습도 있고 낯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2) 참여자 12의 서술 추출

전학 온 친구와 친해져서 왕따에 가담하지 않자 친구들

이 시비를 걸거나 피해버리는 바람에 친구에 대한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울었고 그 후 친구를 사귄 때 경계하게 되었다.

(3) 연구자 언어 종합

친구들에게 배척당하면서도 정의로운 우정을 지키려 노력하였으나 대인관계의 상실과 배신감의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인간관계 형성에 경계심을 갖는 과정이다.

(4) 참여자 12의 언어-예술

참여자 12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 체험은 친구들에게 배척당하면서도 정의로운 우정을 지키려 노력하는데 따르는 상실감과 배신감의 고통을 겪는 과정이다.

2. 핵심개념의 발견적 해석(Heuristic Interpretation for the Core Concepts)

참여자의 서술에서 추출한 핵심개념으로 체험의 구조

를 서술적으로 표현하여 종합한 체험의 내용은 Table 2와 같다. 대학생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체험의 구조와 Parse 이론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핵심개념을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과 관련시켜 구조적 전환을 하였다.

논 의

연구참여자들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 체험의 핵심은 첫째,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받았다는 생각으로 인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 둘째, 가정불화에 따르는 적대감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셋째 왕따와 관련된 소외감, 배신감, 죄책감, 상실감 등의 고통이었다.

어머니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남자 형제에게 밀린다고 생각하며 성장한 상처는 시간이 지났지만 ‘어묵볶음’처럼 작은 단서에 의해서도 재현되고 그동안 쌓인 분노는 관계의 중단을 선언하게 하였다. “엄마는

Table 2. Heuristic Interpretation of the Core Concepts

| Core concept | Structural transposition | Conceptual integration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gative self-concept rooted from parent's discrimination and ignorance. Frustration and difficult interpersonal relationship from to the family conflict Loneliness, guilt, and feeling of treachery related to bully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Human dignity and self-esteem damaged by psychological trauma. Emotional grieving and social withdrawa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Valuing Enabling-limiting Connecting-separating Transforming |
| Structure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ffering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are negative self-concept rooted from parent's discrimination and ignorance. Frustration and difficult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 from family conflict, and loneliness, guilt, and feeling of treachery is related to bullying. | | |
| Structural transposition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ffering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damaged human dignity and trigger low self-esteem, emotional grieving, and social withdrawal by psychological trauma. | | |
| Conceptual integration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ffering experiences of nursing students are transforming of valuing enabling-limiting connecting-separating. | | |
| Artistic expression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uffering - whether physical, emotional, spiritual, or as often the case, all three can be a doorway to transformation... Telling stories can be healing. We all have within us access to a greater wisdom, and we may not even know that until we speak out loud. Listening to stories also can be healing. A deep trust of life often emerges when you listen to other people's stories. You realize you're not alone; you're traveling in wonderful company. Ordinary people living ordinary lives often are heroes. | | |
| By Dean Ornish in the foreword of Remen (1997)'s Kitchen Table Wisdom | | |

나를 키우기 힘든 아이라 하였고... 항상 동생에게 밀려있다고 생각하여 상처가... 사춘기에 반항이 심하고.... 아직도 엄마와 문제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상처가 불거져 나왔다. 한 달 전부터 어묵볶음을 해달라고 말했... 안 해주던 분이 동생이 오니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 먹는데 엄마는 폭식한다고 혼내셨다. 너무 화가나 크게 싸웠고... 집을 나와서 지내겠다고 선포하였..."

또한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했으며 그 분노로 인해 어머니와 사이에 마음의 벽을 쌓은 채 수면장애 등을 보이며 비통해하였다. "아주머니끼리 자식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지원하지도 않은 Y대를 지원했다고 거짓말을 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부끄럽다고 했다. 순간 달리는 차문을 열고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내 기분을 언짢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게 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동안 잠도 못 잤고... 화가 잡자기 나고 운적도 많다."

즉 성장과정 중 부모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았다는 느낌이 대학생 나이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큰 고통으로 남아 있었다. 이는 모-자녀 관계가 모든 관계의 근본임을 상기시키는 한편 Edwards와 Dickerson (1987)도 언급했듯이 인간이 겪는 상처에는 학대나 폭력 등 뚜렷한 외상적 사건도 포함되지만 사소한 인간관계 마찰이나 오해, 개인적인 실패도 고유한 상처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따라서 뚜렷한 외상적 경험을 가진 대상자에 대한 간호의 관심은 물론이지만 정신건강증진 차원에서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오래도록 해결하지 못한 고통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 대상자들을 위한 중재도 개발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다툼으로 인해 두려웠던 기억과 부모-자녀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하였다. "술에 취해 들어온 아버지와 엄마가 말다툼하는 소리... 막막하고 무서워서 평평 울었... 집에 있던 모든 식물을 가방에 넣고 나와 버렸...",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자주....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살게 되면 언니랑 나는 어떻게 될까. 커 갈수록 아빠와 거리가 점점 생기는 것을 느꼈고...",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날이 지날수록 점점 불편해지고,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 항상 아버지가 무섭고, 어려웠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고통 체험에 따라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성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

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로 미루어 심리적 외상이나 고통 극복이라는 측면에서 대상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면 뚜렷한 특정 외상만이 아니라 넓은 범위의 생활사를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대학생의 12%가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Park (2007)의 기사가 말해주듯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음을 깨닫고 일차 예방적 차원의 관심을 더 쏟을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부모와 사별 경험은 고통스러운 외상이면서도 그 부모를 위해 잘 살아야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게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갑게 식어가는 아빠 손을 잡고 숨이 끊기기 직전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을게.'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 아빠를 가끔 잊은 듯이 살고 있다.... 슬프고 힘들어도 엄마 앞에서는 내색할 수 없고 혼자 앓아야 했다. 겉은 강한 사람이 되었고... 엄마에게 욕되지 않게 더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즉 부모와 사별은 크나큰 상처이지만 부모-자녀 관계가 질적으로 손상 받은 게 아니므로 부모의 싸움이나 결별보다는 미치는 영향이 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을 여전히 어렵게 하는 또 다른 고통은 친구관계였다. 친구 관계 중에서도 특히 집단따돌림(왕따)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뤘다. 왕따를 당한 후 배신감에 고통스러웠고, 이후 자신감을 잃은 채 남의 눈치를 보고 낮을 가리게 되었으며, 타인을 잘 믿지 못하고 경계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아 왕따의 중장기적 영향을 나타냈다. "힘 있던 친구들이... 놀지 말라는 제안을... 거절했던 기억... 철저한 고립이었... 아이들 눈치 보고 선생님 눈치 보고... 어느새 행동할 때 마다 눈치를 보고... 제 모습에 자괴감을 많이 느꼈고...", "담임선생님께서 나를 좋아하자... 날 왕따 시키는 모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주위 사람이 내 기준이 되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과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가끔씩 그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 "친구들이 담배, 술을...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하였... 친구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자 배신자로 배척... 왕따 시키는데 가담하지 않자 대부분의 친구들은 눈치를 보면서 피했습니다.... 배신감에 혼자 잠자기 전까지 매일 울었습니다. 친구를 사귄 때 경계하는 모습도 있고 낮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친구가 도움을 청했을 때 외면했다가 이후 그 친구가 자살하게 된 경험으로 심한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 고통이 평생 남을 것이라고 힘들어 했다.

“친구가 도움을 청했을 때... 외면했던 죄책감으로, ... 마지막 인사를 못하고 보내고 말았... 괴로운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를 잊어가는 것 같고 무더지는 자신을 깨달을 때, 이 죄책감과 미안함은 평생 남을 것.” 물론 대학생들의 부정적인 생활 경험 1순위로 Chang과 Seong (2008)도 보고했듯이 이성친구와 이별하고 외로움에 고통 받는 경우도 있었다. “혼자 버려졌다는 느낌을 못 견디... 울면서 한탄했다. 외로워죽겠는데... 속으로만 끔끔 앓다가... 누군가 작은 말실수라도 하면 큰 싸움으로 번지기 때문에 사람을 피했다. 말 못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영영 없어 보인다.”

이상 연구참여자들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 체험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인격적 존엄성이 손상되고 자존감이 저하되어 정서적으로 비통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위축되어 있는 것이라고 종합할 수 있다. 이것을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으로 해석해 볼 때 해결되지 않은 대학생의 고통 체험은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 초월하는 과정에서 가치화, 가능-제한, 연결-분리로 변형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그 중 좀 더 나은 성숙의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참여자는 참여자 1, 7, 8의 경우처럼 스스로 반성(reflection)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거나 가족 관계가 지지적인 경우여서 이런 극복력(탄성력)의 요소들에 따라 같은 상황이어도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보였다.

주목할 것은 참여자들 대부분이 고통이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고 예견한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참여자가 모두 여학생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Chang과 Seong (2008)에 의하면 생활 속의 부정적인 경험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학생이 다수인 간호대학생들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과정 안에서 꼭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간호학과 학생들은 전공 실무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더욱 발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 인간 되어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체험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교육과 치유 차원에서 모두 효과적일 수 있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글쓰기를 상처 경험이나 심리적 고통에 대한 중재로 발전시키면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선행연구에서도 글쓰기를 통해 심리적 상처 경험을 노출했을 때 신체적 증상, 상처 경험의 회상, 정서, 자기지각, 삶에 대한 만족, 자기 존중 등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다는 보

고를 하고 있다(Baek & Lee, 2005; Lee & Cho, 2000). 일회성보다는 글쓰기를 반복했을 때 그 효과가 긍정적이었다고 Lee와 Cho (2000)는 보고하였다.

반복적인 글쓰기와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활용해 해결되지 않은 고통 체험을 노출함으로써 고통의 구조를 이해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가는 교육 중재로 활용한다면 치유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어 매우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물론 Kim (1992)의 언급처럼 자기노출의 효과를 매개하는 요소들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중재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

간호학과 여대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 체험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Parse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연구 질문은 “해결되지 않은 고통 체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이었다.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연구참여자 총 12명의 서술문을 수집하고, 연구자와 참여자가 진정으로 함께 하면서 서술한 체험에 대해 비구조적인 대화를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대학생의 해결되지 않은 고통 체험의 구조는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받았다는 느낌에 따르는 부정적 자아개념, 가정불화로 인한 적대감과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집단따돌림(왕따)과 관련된 소외감, 배신감, 죄책감, 상실감으로 고통 받는 것이었다. 이는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인격적 존엄성에 손상을 받고 자존감이 저하되는 데서 오는 정서적 비통과 사회적 위축이라고 구조적 전환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고통 체험은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 초월하는 과정에서 가치화, 가능-제한, 연결-분리로 변형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개념적 통합을 할 수 있다.

결론에 즈음하여 Ornish의 표현(Remen, 1997)을 빌어 고통에 대해, 그리고 서로 나눔에 대해 함께 느껴보도록 한다. ‘고통은 신체적, 정서적, 영적 변환이 일어나는 출입문으로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치유에 이를 수 있게 한다. 우리 모두 이 안에서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는데 소리 내어 말할 때까지 우리는 서로 모를 수 있다. 이야기를 듣는 것 또한 치유에 이르게 한다. 종종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생의 깊은 신뢰에 눈을 뜰 수 있다. 혼자가 아니라 멋진 친구와 함께 여행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일상적인

삶(ordinary life)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ordinary people)이 때로 영웅이다’.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진정으로 함께 해주는 1:1 대화를 통해 대상자들은 이완되고 후련함을 느꼈다고 표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통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되어감(becoming)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지만 대상자들의 ‘인간 되어감’은 이어질 것이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제안을 하자면 대학생들이 고통 체험으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성숙할 수 있는 교육치유 중재를 개발 적용하고 건강증진 차원의 효과에 대해 중장기적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일 지역 대학의 간호학과 여대생이었으므로 일반화를 위한 연구 시도가 더 필요하다.

REFERENCES

- Baek, J. M., & Lee, M. K. (2005). The effect of self-disclosure through writing on traumatic experienc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2005 Conference of The Korean Clinical Psychology.
- Chang, M. O., & Seong, H. R. (2008). The study of effect factors by negative experiences in personal life: With college student subjects. *Bus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1, 59-74.
- Choi, E. Y. (2010). *Effects of childhood interpersonal trauma exposure on impaired self-capacities in college women: The mediating role of internalized sha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Doucet, T. J. (2009). Trusting another: A parse research method study. *Nursing Science Quarterly*, 22(3), 259-266.
- Edwards, S., & Dickerson, M. (1987). Intrusive unwanted thoughts: A two-stage model of control.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0, 317-328.
- Kang, K. A. (1998). The meaning of suffering to teenag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hild Health Nursing*, 4(1), 45-59.
- Kee, C. Y. (2007).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umatic experience and mental health.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0(3), 61-74.
- Kim, H. J. (2004). Die leidende erinnerung und die tätige erinnerung bei Peter Handke. *Büchner und moderne Literatur*, 22, 192-200.
- Kim, K. (1992). Functions of self-disclosure in close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1), 196-222.
- Kim, M. J., & Jo, K. H. (2008). Suffering and spiritual approach.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7(2), 121-130.
- Kim, S. S., Ina, M., Shin, K. R., & Yang, S. O. (1994). The lived suffering experiences of mothers who have lost a child: A study using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ology. *Ewha Journal of Nursing Science*, 6, 5-31.
- Ko, N. R. (2008). *The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difficulties and interpersonal problem who had complex trauma in child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C. S., Kim, S. J., & Kang, K. S. (2000). Case study on life experience of person with chronic mental disorder.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 5(1), 203-223.
- Lee, E. J., & Cho, S. H. (2000). Psychological effects of writing about a painful experienc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2), 205-220.
- Lee, S. Y., & Lee, K. H. (2002).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 in domestic and outside applied Parse's human becoming theor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1), 43-61.
- Park, S. C. (2007, April 19). *12% of college students undergone depression*. The Chosun Ilbo, p. A16.
- Parse, R. R. (1992). Human becoming: Parse's theory of nursing. *Nursing Science Quarterly*, 5, 35-42.
- Parse, R. R. (2001). The lived experience of contentment: A study using Parse research method. *Nursing Science Quarterly*, 14(4), 330-337.
- Parse, R. R. (2005). The human becoming model of inquiry: Emerging sciencing. *Nursing Science Quarterly*, 18, 297-300.
- Parse, R. R. (2006). Feeling respected: A Parse method study. *Nursing Science Quarterly*, 19(1), 51-56.
- Remen, R. N. (1997). *Kitchen table wisdom: Stories that heal*. New York: Riverhead Books.
- Yang, S. E. (2008). Parental loss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9(5), 39-49.